

# 한·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현황과 방향

- 최근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 결과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강명구 (mgk101@kdb.co.kr)

- ◆ 한·카자흐스탄 정상은 '전략적 동반자관계'를 강화하고, 한국의 '뉴딜 정책'과 카자흐스탄의 '국가발전계획 2025'를 조화롭게 접목해 상호이익과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
- ◆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농업, 에너지, 인프라,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으며,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, 전기차 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 가능성에 중점
- ◆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투자협력은 자동차, 플랜트 등 기간산업 부분, 희토류 등 자원개발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

## □ 한국 정부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국민방문(20.8.16~17일)을 계기로 카자흐스탄과의 '전략적 동반자관계'를 심화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

- 카자흐스탄\* 카심-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'19.4월 한국 대통령의 자국 국민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을 빌어 최근 한국을 방문
  - '16.11월 나자르바예프 전대통령 방문 이후 5년만의 카자흐스탄 정상 방한
  - \* 유라시아지역 중심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신북방정책 14개 대상국 중 하나로, GDP는 1,468억달러, 1인당GDP 8,733달러('20년 기준)로 신북방국가 중 2위 국가(중국 동북 3성 제외). 원유 39억톤(세계 12위), 천연가스 2.3조m³(세계 15위)를 매장하고 있으며, 우라늄 생산량은 22.8천톤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광물자원의 보고
- 양국 정상은 8.17일 회담에서 양국의 '전략적 동반자관계'\*를 심화하고, 한국의 '뉴딜 정책'과 카자흐스탄의 '국가발전계획 2025'를 조화롭게 접목해 상호이익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
  - \* '전략적 동반자관계'는 국가간 우호관계 6단계(①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> ②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> ③전략적 동반자관계 > ④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> ⑤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 > ⑥포괄적 동반자관계) 중 3번째 단계로, 동 관계국간 평화 모색, 국제 현안과 대외적 전략까지 상호협력하는 단계
  -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'프레시 윈드(Fresh Wind)\*'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, 희토류 등 자원개발, 자동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를 논의
  - \* '19.4월 양국간 합의한 "무역, 산업, 과학, 금융, 인프라건설, 농업, 보건의료, 문화, 첨단기술 9개 분야내 무역·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('20~'22년) 프로그램"

## □ 한국은 '신북방정책'\* 추진과 '프레시 윈드(Fresh Wind)' 프로그램 협약 체결 전후 카자흐스탄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시도

\*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기반으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·물류 및 에너지 등 각 분야의 협력과 연계성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남·북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협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

- ① (에너지) 에너지부문 투자협업은 원유 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, 아크자르·베스볼렉·카라테키즈·알림바이(Akzhar·Besbolek·Karataikyz·Alimbai) 유전 등이 대표적 사례
  - 아크자르·베스볼렉·카라테키즈·알림바이 유전은 한국석유공사(KNOC)가 95% 지분을 취득하여 현재 생산활동 중
- ② (인프라) 한국 정부는 '09.5월 양국간 '에너지·건설·도시계획수립 관련 MOU를 체결하고 한국 건설업체의 현지 진출을 지원
  - KCC건설은 동 MOU 체결 직후인 '10년부터 3년간 '카자흐스탄 CAREC 도로공사'의 구간 시공에 참여
  - '20.2월 SK건설과 도로공사는 '프레시 윈드(Fresh Wind)'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카자흐스탄 최초의 인프라 PPP사업인 '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' 시공을 주도
- ③ (자동차산업) '10년 기아차가 카자흐스탄에 자동차 조립생산(CKD) 기지 설치로 최초 진출한 이후 쌍용차와 현대차도 연이어 진출
  - 기아차는 '10.5월 현지기업인 아시아오토(ASIA AUTO)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양산모델을 조립생산하였으며, 최근인 '21.3월에는 모델 라인업 확장을 위해 사리아카 압토프롬(Saryarka AvtoProm)에 생산라인을 증설
  - 쌍용차는 '14년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시에 소재한 현지 농기계기업 아그로마시홀딩(Agromash Holding)과의 협업으로 연간 1만대 조립생산(CKD) 라인을 가동
  - 현대차도 '20.10월 알마티시에 연간 3만대 조립생산공장을 완공하여 자사 일부 모델을 조립생산 중
- ④ (농업) 한국 농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은 직접적인 영농보다는 시설재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출에 중점
  - 곡물 수출강국임에도 카자흐스탄 자국내 생산이 어렵던 고구마 품종의 식재를 돕기 위해,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'14년 이후 3년간 아스타나 인근 등 4개 지역에

고구마 10개 품종을 시범 재배

- 뒤이어 '16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(농진청 산하기관)은 한국 농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온실 및 스마트팜 설비를 현지 농기업인 반아그로에 수출
- '19.4월 'K2 아르고(Agro)' 컨소시엄\*은 한국 농림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알마티시에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
  - \* 동 컨소시엄은 나레트랜드, 팜스코, 태광뉴텍, 우림인포텍 등 4개사로 구성(나레트랜드는 복합한 경제어기 업체, 팜스코는 온실시공업체, 태광뉴텍은 필름업체, 우림인포텍은 농산물 빅데이터 유통플랫폼 보유 업체)
  - 동 스마트팜은 카자흐스탄내 최대 소비 채소류(토마토, 오이, 겨울철 딸기 등) 재배 뿐만 아니라 농산물 직접 판매·유통 등에도 직접 진출할 계획

**□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은 신재생에너지, 전기자동차 등 분야에 대한 국가간 협력에 관심 집중**

- 최근의 세계 흐름을 좇아 카자흐스탄도 저탄소사회 전환 준비, 글로벌 탄소중립에 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협력 수요에 증점
  - 카자흐스탄 정부는 '50년 전체 발전량(화력과 수력이 99%) 중 50%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충당하기 위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건설 등 19개 프로젝트를 발족
- 특히,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전기차산업을 적극 촉진 하려는 의지
  - 한국 입장에서는 현지 조립생산 라인을 보유한 현대·기아차 등 관련 기업 연계를 통한 국가간 협력을 구상해 볼 수 있는 대표적 분야

**□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금번의 '정상회담'과 '한·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'을 계기로 경제협력 확대 토대를 마련**

- 한-카자흐스탄 간 향후 협력은 자동차, 플랜트, 자원개발(희토류) 등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
  - 8.17일 개최된 '한·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'을 통해 양국은 ①자동차 산업 협력 강화, ②합금철 및 석유·가스 분야에서의 플랜트 협력, ③니켈·코발트·희토류를 포함한 자원개발 협력 등에 대한 23건의 MOU를 체결
  - 동 라운드 테이블 이후 현대차는 '22.2분기부터 카자흐스탄 알마티 조립공장에서 투산을 조립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(연간 6천대 생산능력)

- 카자흐스탄은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 기반 조성에 최대의 초점을 두는 한편, 한국은 자원 확보와 특정 산업기반 협력을 위한 주요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모색
  - 카자흐스탄은 한국 투자유치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, 산업 및 공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침체 경제의 활성화에 주력
  - 한국은 개발협력을 통한 희토류 등 자원개발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시장 선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
#### □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는 클 것으로 예상

- 교역량 확대, 에너지 안보, 미래산업을 위한 자원확보, 카자흐스탄의 산업구조 개편, 탄소중립을 위한 외자기업 유치 노력 등 측면에 비춰볼 때, 양국간 협력 가능 범위와 보완적 잠재력은 상당
- 이러한 협력 실현을 위해서는 자국내 개별사업 정보의 사전 공유 및 사업자 권리 보호 등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세심한 후속 조치가 필수
  - 일례로, 과거(15년) 양국간 대표 협력사업이었던 '발하슈 석탄화력발전사업'이 사업진척에 필수요소인 '국가의 전력구매 보증'을 거부함으로써 무산되었던 전례
  - 이와 유사한 사업환경적 장애의 향후 재발 방지가 성공적 협력의 전제임을 특별히 유념할 필요